

2022년 07월 1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3편 6~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93(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장 1~10절(구약p.763)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6.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7.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으로구나

◎ 말씀선포 / 시련의 한복판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은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자를 결코 만족시킬 만큼 도울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만을 들어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쏟아내어 품고 있는 자신의 상태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잠시장간의 자신의 위안이 될 뿐이며, 때로 악한 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더욱 어려움과 낙심시키는 일로 더욱 상황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지금 욥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 생각이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견지했던 굳건한 모습과는 분명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표현하는 욥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또 그 마음과 생각

을 과연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옴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옴의 고백은 먼저,

1. 고통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일곱 주야의 침묵이 지난 후 옴이 먼저 친구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 때에 죽지 않았음을 하소연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옴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고 했고, 3절에서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사단이 원하는 바처럼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옴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모태에서 잉태되던 날이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옴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결코 그의 부모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지금 옴의 이러한 일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옴의 탄식은 고난을 통하여 온 영과 육적인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으로 여기며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자들은 마음의 상태를 외면하다가 결국 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든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으며,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했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고난 앞에 겸허해지 것이요, 이때가 성도들에게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일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만나 주시며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고통을 솔직히 표현해하는 것입니다.

- 옴은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며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옴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참기보다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토로했습니다. 아마도 옴은 타는 듯 한 답답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기 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저 묵묵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이라 치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접하고 절망과 낙심, 엄청난 고통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태어난 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절

망과 낙심을 예외 없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부모를 찾아와 울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 토로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격한 마음의 상태와 생각까지 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을 쏟아놓는 이야기를 듣기 거절하고 야단치며 돌려보내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에 때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편이고 자식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인생의 부모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상실한 마음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슬픔과 낙심,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1(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폐 회 / 주기도문